

해밀턴 층상모델 관점에서 본 남성 넥라인 분석  
-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초상화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Male Neckline  
from a Hamilton's Cultural stratiform model  
- Renaissance and Baroque portraits -

주저자

정 인 의 Jung, In-ui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석박사통합과정 | Lecture of Dankook University

dlsdml0518@naver.com

공동저자

김 현 주 Kim, Hyun-joo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Hyunjookim@dankook.ac.kr

교신저자

윤 지 영 Youn, Ji-young

단국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과 초빙교수 | Visiting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1201youn@hanmail.net

투고일	2019.06.10	심사일	2019.07.15	게재확정일	2019.07.26
-----	------------	-----	------------	-------	------------

##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해밀턴의 층상모델
    - 2.2. 층상모델 관점에서 본 르네상스와 바로크
      - 2.2.1. 르네상스
      - 2.2.2. 바로크
  3.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 네크라인의 외적 분석
    - 3.1. 르네상스 - 러프칼라
    - 3.2. 바로크 - 폴링칼라, 크라바트
  4. 시대별 남성복 네크라인의 내적 의미
    - 4.1. 사회성 : 권위의 시각화
    - 4.2. 예술성 : 심미추구의 조형성
    - 4.3. 실현성 : 구조의 변형성
  5. 결론
- 참고문헌

### Keyword

르네상스, 바로크, 네크라인, 문화층상모델  
Renaissance, Baroque, Neckline, Cultural stratiform  
model

## Abstract

The changes in costume have reflected the event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art of each time, and also have worked as symbolic means like authority and dign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ernal values and meanings by analyzing changes in the neckline of men's wear shown in the portraits of the Renaissance and Baroque periods, focusing on the cultural stratiform model by Jean A. Hamilton.

In the methods of this study, the frame of theoretical background was formed by focusing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s through data collection such as preceding researches, theses related to the history of costume/art, journals, books, and internet online. Especially, based on Hamilton's theory of stratiform model, the background of the time was examined based on the cultural elements of the Renaissance and Baroque periods. As the concrete research cases, this study attempted the external analysis on the neckline of men's wear focusing on the portraits shown in the Renaissance and Baroque periods. Out of 150 portraits of those two periods, this study selected the ruff collar, falling collar, and cravate in 52 portraits clearly showing the visual structure of neckline, and then conducted the external analysis. This study drew total three internal meanings of changes in the neckline of men's wear. First, largely focusing on the cultural elements, it is the 'sociality'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authority. Second, it is the 'artistry' through the formativeness of aesthetic pursuit. Third, it is the 'realizabilit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structure. Like this, the technology, social structure, and ideology based on the cultural stratiform model have much influenced the changes and styles of costume. Especially, this study reviewed the significance of external changes and internal development of men's wear through the changes in the neckline of men's wear in the Renaissance and Baroque periods.

## 논문요약

복식의 변화는 시대별 정치, 경제, 사회, 예술의 사건들을 반영해왔으며, 권위와 위엄 등 상징적인 수

단으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는 해밀턴(Jean A. Hamilton)의 문화 층상모델 이론을 중심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초상화에 나타난 남성복 네크라인의 변화를 분석하여 내재적 가치와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와 복식사 및 예술사 관련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인터넷 온라인 등 자료 수집을 통한 문헌조사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의 틀을 형성하였다. 특히 해밀턴의 층상모델 이론을 바탕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문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나타난 초상화를 중심으로 남성복 네크라인의 외형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시대의 초상화 150점 중 시각적으로 네크라인의 구조가 확실히 나타나는 52점의 러프칼라, 폴링칼라, 크라바트를 선별하여 외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복 네크라인의 변화가 지니는 내적 의미는 총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문화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크게 권위의 시각화를 통한 ‘사회성’ 둘째, 심미추구의 조형성을 통한 ‘예술성’ 셋째, 구조의 변형성을 통한 ‘실현성’이다. 위와 같이 문화층상 모델에 근거한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는 복식의 변화와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남성 네크라인의 변천사를 통해 남성복의 외적 변화 및 내적 발전이 가지는 의의를 조명할 수 있었다.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복식 양식은 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 또는 시대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혁 등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복식의 양식 변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했던 해밀턴은 “<복식의 양식>이란 인간과 사회, 민족, 시대별 행동 및 생활 수단, 집합적 정신의 표현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으로, 문화의 형성 방식을 뜻한다.”<sup>1)</sup>고 하였다. 또한, 시대의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복식 양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며 복식 양식의 변화를 가

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고증자료로 초상화를 꼽을 수 있다. 초상화는 시대의 복식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사료이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계급,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우월 의식과 함께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초상화 제작을 위해 신분에 맞는 상징적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의복을 신체의 연장이 되도록 시각화하였다. 초상화 내의 복식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인체 비례를 무시하고 특정부위의 과장 및 확대를 통해 시각화하여 근엄함과 위엄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상화에 드러난 복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및 발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는, 복식이 그 시대의 여러 경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경향을 형태로 나타내는 데에 가장 좋은 가시적 수단이라 여겼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시대별 문화권에서 계급과 위엄을 나타내는 인체부위인 머리와 연결된 목은 상징적으로 부와 권위를 표현하는 부위이다<sup>3)</sup>. 르네상스 시대 이후 바로크 시대, 나아가 근대 사회에 걸친 초상화의 복식을 보면, 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네크라인의 디자인 변화가 다양하게 시도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남성복식 중 넥타이 아이템으로 계승되었다. 아래의 <표 1>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복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다. 해당 시대의 복식 연구는 복식의 미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벨플린의 양식사 관점에서 두 시대의 복식 비교, 두 시대간 복식의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위와 같이 최근까지의 연구는 주로 예술과 패션, 시대별 이상미, 시대 양식을 바탕으로 한 사상 등의 연구와 특정 부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바로크 두 시대 통틀어 당시의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요인에 따른 총체적인 변화요인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이 중에서도 남성복을 세부적인 네크라인의 발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당대의 기

1) Hamilton, J. A., 「Dress as a Cultural 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1988, pp. 1-7

2) 이은숙(1993), 루벤스의 작품을 통해 본 여자복식, 복식문화연구회지, 창간호, P. 82

3)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03

술·사회구조·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결부시킨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남성 네크라인의 사례를 해밀턴의 층상모델 이론 중 문화 구성요소를 통하여 남성복의 외적 변화 및 내적 가치와 그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대를 재편하고 변화·발전시킨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고찰하고, 남성복 네크라인의 변화와 발전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대의 미의식과 사회 문화적인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표 1> 르네상스, 바로크 복식 선행연구

저자명	주 제	키워드
신주영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 -르네상스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2008)	시대적 이상미/ 시대정신
장성은	벨플린의 양식사적 관점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양식비교 (2007)	고전주의/미의식
정현숙	고딕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2018)	고딕/남성복식/ 미적특성
정현숙 박길순	르네상스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2015)	남성복식/ 미적특성
주명희	벨플린의 양식사에 따른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복식에 관한 연구	벨플린/시대의상 /복식미
최수현 김민자	복식의 미적 범주 -르네상스 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시대복식/ 미적범주

##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밀턴의 층상 모델<sup>4)</sup> 이론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한 후, 문화 구성요소(기술·사회구조·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회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바로크, 르네상스의 복식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남성복 네크라인의 외적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범위는 문화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변화와 발전을 보여준 르네상스 시대의 러프 칼라(Ruff Collar)와 바로크 시대 전기의 폴링 칼라(Falling Collar), 바로크 시대 후기의 크라바트(Cravatte)로 한정하였다. 이 3가지 네크라인 사례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복식 양식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초상화 자료 150점 중 67

점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67점의 초상화에 나타난 복식의 외적 형식인 착용계급, 소재, 형태 및 구조의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사례 수집은 패션사 외의 예술사, 서양미술사 등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가 집중 조명된 단행본과 인터넷 자료에서 수집하였고, 시각적으로 구조가 확실히 구별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셋째, 네크라인인 외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내용들을 해밀턴의 층상모델 중 문화 구성요소들과 상호연관 시켜 내재적 가치와 의미들을 이끌어 내었다.

아래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 흐름도이다.



<그림 1> 남성 네크라인 변화 연구 흐름도

##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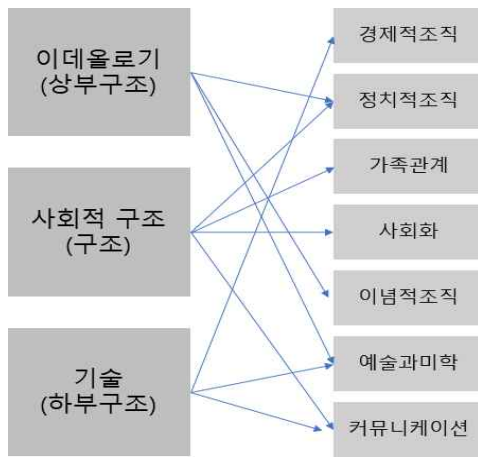
### 2.1. 해밀턴의 층상모델

해밀턴은 사회현상 및 시대별 관점으로 복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던 연구자이다. 그는 복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총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그에 따르면, 복식의 양식이란 인간과 사회, 민족, 시대에 따른 특징적인 행동 수단, 생활 수단, 집합적 정신의 표현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으로, 문화의 형성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복식양식의 변화 요인 및 양상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특정 시대의 문화 및 시대별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해밀턴은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조직화하며 적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가 주장한 '층상 모델'이란 기술, 사회,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문화요소로써 하부구조,

4) Hamilton, J. A, 「Dress as a Cultural Sud-system :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1988, pp. 1-7

5) Hamilton, J. A, 「Dress as a Cultural Sud-system :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1988, pp. 1-7

구조, 상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성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문화의 영향과 변화의 역동적 체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였다<sup>6)</sup>. 아래의 <그림 2>는 앞서 언급한 해밀턴의 층상 모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도표로, 해밀턴의 층상 모델인 기술·사회구조·이데올로기가 다양한 구성요인으로 형성되어있는 문화 메커니즘과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시대별 기술, 사회적 구조,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문화 구성요소는 다양한 사회 구성요인에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해밀턴의 문화층상 모델과 메커니즘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의 핵심인 이 구성요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대별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사회와 계급의 변혁을 보여주는 등 복식 양식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해밀턴의 문화층상 요소는 복식 양식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포괄적이며, 더 나아가 개인, 사회,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2.2. 층상모델 관점에서 본 르네상스와 바로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밀턴은 복식의 양식이란 세 가지의 기본적이고 서로 구별되는 문화 구성요소, 즉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sup>7)</sup> 이러한 각각의 문화 구성요소는 시대별 기술의 발전, 사회·문화적 구조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성립에 따라 복식의 형성 및 변화·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

다. 본 장에서는 먼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후, 위의 세 가지 문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적 배경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문화는 대양무역을 통해 지중해와 대서양을 중심으로 국가교역이 확대되며 더욱 풍성해졌다. 또한 산업구조가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수공업으로 변화하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 세력인 대상인들과 금융자본가 등에 의해 자본주의가 성장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했다<sup>8)</sup>. 이러한 사유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는 근대 시민사회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 예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예술·건축양식 등을 부활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예술 작품은 웅대함, 조화, 균형을 특징으로 성행하였다. 이처럼 직물공업을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식미를 형성하였다. 이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확대, 과장, 왜곡의 형태로 나타났다.<sup>9)</sup> 특히 이와 같은 형태는 왕과 귀족, 신흥지배계층의 복식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의 계급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복식의 대중화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국제적 모드가 유행하는 등 복식 문화의 획기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6) 김민자(2013), 「복식미학」, (주)교문사, p. 120

7) 김민자(2013), 「복식미학」, (주)교문사, p. 121

8) 차하순(1994), 「서양사총론」, 탐구당, p. 240

9) 배수정 외, 「현대 패션과 서양 복식문화사」 참고, 수확사, 2008



<그림 4> 바로크(Baroque) 시대적 배경

17세기 바로크(Baroque) 시대의 유럽 각국은 광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국제적 상업도시가 발달하였다. 또한, 프랑스 왕권이 절대화 되었는데, 이는 복식 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왕권의 절대화란 국왕의 절대적인 존재를 국가적으로 범령화한 것을 일컫는다<sup>10)</sup>.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 불리며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였으며,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절대 권력을 누렸다. 따라서 당시의 궁전의 규모는 장대했으며, 왕의 위대함과 권력을 상징화 하였다. 또한 귀족중심의 예술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에, 이 시기의 예술품들, 특히 조각 분야에서 인간의 근육미와 역동성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화려함이 가미되었다. 이에 따라 바로크 시대의 복식 또한 귀족 중심이었으며, 기하학적 이미지의 화려함과 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계급의식이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해밀턴 복식 양식의 문화 구성 요소인 기술·사회적 구조·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관점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분석하였다.

### 2.3.1. 기술

기술(Technology)은 인간의 생물학적·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사용되는 물리적 대상, 즉 물질적 문화를 말한다.<sup>11)</sup> 복식에서의 기술은 문화체계의 일부로, 섬유, 실, 천 등의 재료 발달 및 베틀이나 방직기, 방적기 등의 도구와 그를 사용하는 기술, 화장이나 머리장식의 기술, 컴퓨터의 이용 등을 의미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기술은 공장제 수공업로의 전

환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복식은 매우 다양해졌다. 중세 이후부터 발달되어오던 재단기술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더욱 촉진되었으며, 이는 고급 의복의 발달로 이어졌다. 또한, 16세기 중엽에는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지방에서 고급 레이스가 개발 및 생산되었다<sup>12)</sup>. 이를 통하여 의복의 세련미와 디테일이 더해지며 고급 의상을 통한 계급 상징의 시각화가 본격화되었다.

바로크 시대는 상업도시별로 다양한 상공업이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별 부가 축적되었다. 국가는 통치의 목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미화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중심의 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진 기술이 발전하여 예술·경제·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는데, 이와 더불어 고급 소재 개발로 인한 복식의 다양한 양식을 확립하였다. 이처럼 기술은 복식 양식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르네상스, 바로크 문화구성요소 비교 - 기술

### 2.3.2. 사회구조

사회구조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확립된 행동의 양상이나 규범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기구에 의해 조정되거나 정의된 관계에서 인간의 영속성을 잇는 배열을 의미한다<sup>13)</sup>.

르네상스 시기는 베네치아에서 서유럽으로의 문화 이동이 활발해져 국가 간의 교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서유럽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국가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바로크 시대 절대왕정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교역의 확대로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상공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공업의 발전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이탈리아 및 서유럽 각국의 도시의 신흥 시민계층은 십자군 전쟁과

10) 임영방(2011). 『바로크』. 한길아트

11) 기술(Technology) : 두산백과, 검색일 : 2019.05.07.

12) 김영옥 외 2명(2009). 『서양 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도서출판 경춘사.

13)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 사회학사전, 검색일 : 2019.05.07

지중해 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며 국가 간의 빈번한 전쟁을 겪으며 사회가 급변하였다. 특히 이 시기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난 30년 전쟁(1618~1648)의 결과, 국제 외교가 수립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특정 국가가 유행을 주도하게 되었다<sup>14)</sup>. 17세기 중엽부터 절대왕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왕권은 복식 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절대왕정의 등장으로 예술·문화 분야에서 왕권의 위대함, 위엄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콜베르의 중상주의<sup>15)</sup> 정책은 국가를 통일하고, 국가권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은행가·상인·법률가 등의 신흥 계급이 형성되어 다양한 사회 계층을 형성하였다. 한편 네덜란드는 공화연방제였기 때문에 복식문화의 주체가 일반 시민이었다. 이에 프로테스탄트 사울 기본 생활지침으로 하여 검소한 생활을 미덕으로 삼았으며, 귀족풍보다는 시민 풍으로, 화려함 보다는 실용성 위주로 발달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다양한 정치체계에 의한 사회구조는 국가별 사회·문화·예술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대두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6> 르네상스, 바로크 문화구성요소 비교 - 사회구조

### 2.3.3.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Ideology : 이념)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되고 있다. 복식에서의 이념이란 복식 디자인의 원리나 질에 대한 인지를 뜻하며 복식의 유행성, 연령과 성에 따른 복식의 적합성 또는 복식을 통한 도덕성, 에로티시즘, 정숙성의 표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up>16)</sup>

14) 임영방(2011). 『바로크』. 한길아트

15) 중상주의(Mercantilism) ; 국가가 경제활동 전반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정책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통일과 국가권력의 증대에 있다.

16) 이데올로기(Ideology)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검색일 ;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예술·건축양식 등을 부활시키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과 시도가 빈번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문주의·인본주의를 필두로 중세의 교회와 봉건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 북유럽의 사회 비판적인 종교개혁은 당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인식하는 큰 계기가 되었는데, 합리적인 종교관을 지닌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교회를 통해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이에 사람들은 기존의 신 중심의 생활에서 점차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는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절대주의 궁정과 기독교의 권위를 세우려는 반종교개혁의 정신을 모태로 나타난 양식이 전 유럽에 퍼졌다. 종교·관념으로부터 탈피한 양식으로써 인간을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인간 정신의 표현 양식인 '형태'의 양식으로 설명된다. 또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성'이 몽테뉴의 회의주의로 인해 실추되었으며, 데카르트<sup>17)</sup>에 이르러 '방법적인 회의'(doute méthodique)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곧 '생각하는 실체(res cogito ergo sum)'로서의 '나'가 된다는 명제를 끌어내어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되기도 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는 문화 구성요소의 상위구조인 이데올로기의 확립으로 이전과 다른 독자적 세계를 추구하였다.



<그림 7> 르네상스, 바로크 문화구성요소 비교 - 이데올로기

위와 같이 해밀턴 복식 양식의 문화 구성요소인 기술·사회구조·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본 결과, <그림 5, 6, 7>과 같이 르네상

2019.05.07

17) 데카르트(Descartes, René, 1596-1650), '수학'이 지배하는 물질세계와 '생각하는 주체'가 지배하는 정신세계가 엄연히 다르다는 철저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사상을 구축하는 합리론을 수립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끌어내었다.

18) 임영방, 『바로크』, 한길아트, 2011, p.122

스와 바로크에서 나타나는 각 키워드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 장의 네크라인 분석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 3.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네크라인의 외적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에 출간된 복식사와 서양미술사 관련 단행본 총 22권에 수록된 초상화 150점 중 계급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을 조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중 지위 및 외적 형태의 변화가 뚜렷한 네크라인 중 70% 이상을 차지한 르네상스의 러프칼라 (19점), 바로크 전기의 폴딩칼라 (16점), 바로크 후기의 크라바트 (17점)를 본 연구의 대표 사례 이미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외적 요소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외적 분석의 세 가지 기준은 착용계급, 소재, 형태 및 구조이다. 이를 통해 해밀턴 층상모델 이론의 문화 구성요소인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르네상스

##### 3.1.1. 러프 칼라(Ruff Collar)

러프 칼라는 16세기 초에 사용되었던 셔츠의 네크 프릴에서 발전한 것으로, 러프가 나타난 1655년경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크기였지만, 재단기술의 발달로 고급 의복이 성행하면서 점차 귀족들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점차 활발히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 3.1.2. 착용계급



<그림 8>  
로버트 더블리 경  
초상



<그림 9>  
렐리(Walter Raleigh)



<그림 10>  
제독 존 호킨스  
(John Hawkins)

러프 칼라의 유행은 158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왕족, 귀족들의 사치와 권위의 상징으로 르네상스의 절정기를 장식했으며, 이는 서민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시기 상공업 발달로 부를 축적한 신흥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귀족, 부르주아, 일반 시민의 계급 구분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 신흥 계층들은 이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족층이 착용하던 러프 칼라를 착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러프 칼라의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다. 초기의 러프 칼라는 뾰족한 스탠드 칼라에 러프를 착용하여 전면에 내세워, 크고 과장되게 보이는 것이 유행의 초점이었다. <그림8, 9, 10> 이는 당시 사회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러프 칼라의 양식은 사회구조의 요소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3. 소재

르네상스 시대부터 직물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기계가 개량되고, 염색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었다. 복식의 소재는 단색의 벨벳이나 두 가지 이상 문양의 직물, 털 길이를 차이 나게 하는 번아웃(burn out) 효과를 표현한 직물, 자수를 놓은 것, 금·은사를 넣어 직조한 사치스러운 직물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러프는 얇으면서 힘이 있는 고급 소재 린, 캔브릭, 또는 레이스를 단단하게 풀칠을 해서 다리미를 사용해 주름을 붙여가는 것이었다. 귀족들은 고급지를 사용하고 견 자수를 놓았으며 심지어 금, 은, 그 외 고가의 레이스로 장식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고급 소재의 개발은 러프 칼라의 장식성이 보다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그림 11>  
Celebrities in the  
Renaissance



<그림 12>  
Portrait of a  
gentleman



<그림 13>  
A portrait of a man 1

이후 <그림 12>처럼 러프의 크기가 커지고 <그림 13>의 카트 휠 러프(Cart Wheel Ruff) 같이 커다란 러프 칼라가 유행하게 되면서 두께는 얇지만 가늘게 깎은 나무나 두꺼운 종이를 심으로 말아 어깨에 올려 붙이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비에 젖거나 바람에 의해 형태가 틀

어지면 다시 쓸 수 없었지만, 스티치(Starch)라는 풀이 등장함에 따라 바람에 돌아가거나 비에 젖어 축축해지는 현상이 줄어들었다. 스티치의 원료는 여러 가지로 소맥분과 초목의 뿌리에서 만들어졌다.<sup>19)</sup> 이처럼 러프의 재료와 소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구조에 따라 그 소재의 변별성이 발생하고, 기술에 따라 러프의 다양성이 생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3.1.4. 형태 및 구조



<그림 14>  
로버트 더들리 (Robert Dudley, 1st Earl of Leicester)



<그림 15>  
에섹스 백작(Robert Devereux, 2nd Earl of Essex)의 초상



<그림 16>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 런던 내셔널 포트레드 갤러리 소장

러프 칼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맞주름을 잡은 둥근 수레바퀴형 칼라이며, 원형, 하트형, 나비형, 부채살형 등 다양하였다.<그림 17> 르네상스 시대 재단기술의 발달을 통해 주름의 크기와 개수, 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신흥계급의 성장과 함께 신분과 직책의 차이에 따라 러프의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었다. 또한 러프 주름의 두께는 기본 3인치 이상이었는데, 네크라인 위로 폭이 9인치나 높은 러프도 있었고, 카트 휠 러프 같은 경우 아래의 <그림 18>와 같이 목부터의 길이가 18인치나 되는 것도 있었다. 크기가 작은 것은 앞 중심이 갈라져 있고, 중간크기의 것은 막힌 둥근 형태이며 수레바퀴처럼 커다란 것은 가장자리에 서포타스(Supportasse)라 불리는 철사를 끼워 넣어 뻗치게 하여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17>  
Portrait of prins Maurits Van Oranje



<그림 18>  
Portrait of Gentleman in Renaissance

러프칼라의 구조는 <그림 19>와 같이 목둘레 위로 1.5배 정도의 덧단을 제작하여 턱선 위로 셔링을 주어 퍼지도록 밴드칼라 형식과 흡사하다. 여기에 목둘레에 금, 은, 또는 견사로 두른 철사를 둘러서 러프가 떨어지거나 엇갈려 밀으므로 쳐지지 않고 지탱하도록 하였다. 앞 중심부터 철사 테두리를 넣어 끈으로 목에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주름구조는 <그림 20>처럼 횡으로 잡아 장식하거나 <그림 21>처럼 종으로 처리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9>  
러프 칼라(Ruff Collar)의 구조



<그림 20>  
portrait of a Bearded man by Rembrandt



<그림 21>  
portrait of a young man

이데올로기 (상부구조)			
사회구조 (구조)	착용계급	소재	형태구조
기술 (하부구조)			

문화구성요소로 분석한 남성 네크라인

<그림 22> 문화구성요소로 분석한 러프칼라

상기의 분석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러프칼라를 문화구성 요소로 분석한 외적 분석 결과는 위의 <그림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즉, 남성복 네크라인의 착용계급과 형태적 요소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변화·발전해온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러프 칼라의 소재 및 구조적 요소는 당시 공장제

19) 패션의역사, 1992

수공업, 발달된 직물산업, 그리고 재단기술 등 기술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 3.2. 바로크 전기

#### 3.2.1. 폴링칼라

폴링 칼라는 1615년경부터 1670년 사이에 유행하였다. 슬래시가 유행하게 되면서 슬래시 안에 하얀 셔츠와 함께 착용하였으며, 작게 세운 스탠드 칼라(stand collar)에 커다란 레이스의 폴링 칼라(falling collar)를 덧붙였다. 때문에 폴링밴드 칼라(Falling band collar)라고도 불렀다.<sup>20)</sup>



<그림 23> Portrait of The Regents of the Old Men's Almshouse Haarlem



<그림 24> Anthony van Dyck, Charles I

#### 3.2.2 착용계급



<그림 25> Portrait of Hamilton



<그림 26> Portrait of Henry Rich



<그림 27> Portrait of The Suitor's Visit

바로크 시대의 복식은 프랑스의 절대왕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경제적 부국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복식도 절대왕정의 상징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복식과 동시에 서민복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초기 바로크의 유행을 주도했던 네덜란드의 정치 체제는 공화연방제였고,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복식문화의 주체가 귀족 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 또한, 17세기 초반 은행가·상인·법률가 등의 신흥계급들이 등장하였고, 그들의 복장은 귀족풍보다 시

민풍을 우선하였으며, 화려함보다는 합리성과 실용성 위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양립 현상을 통해 복식 문화요소로서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 3.2.3. 소재

이 시기의 절대왕정 국가는 자신들의 위대함·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재의 고급화를 통한 장식성 강화에 치중하였다. 신흥계층 또한 본인들의 지위를 강조를 위해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칼라를 착용하였다. 왕가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의복과 장신구 등 사물을 미화하여 제작하였으며, 과한 형태미를 적용하여 장식성을 극도로 강화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진 직물 및 소재, 재단 기술이 현저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폴링 칼라는 <그림 28>의 마지막물, <그림 29>의 레이스 등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반 다이크 칼라는 <그림 30>와 같이 고급스러운 레이스에 자수를 놓은 소재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소재에서도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면이 동시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De reiziger Frans Hals



<그림 29> Portrait of a Gentleman



<그림 30> Datering volgens opgave cat. Westfries Museum

#### 3.2.4. 형태 및 구조



<그림 31> Portret van een man



<그림 32> Nathaniel Bacon - Sir Nathaniel Bacon



<그림 33> Luis XIII

초기의 폴링칼라는 러프에서 변형된 휘스크 칼

20) 배수정 외,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수학사, 2008, p.171

라 <그림 31>처럼 뾰뾰함을 유지하던 형태에서 차츰 턱선과 어깨선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그림 32>와 같은 형태의 칼라로 변화하였다. 또한, 플랫 칼라 등의 목을 감싸거나 어깨를 감싸는 넓은 형태의 목 장식을 하였다. 이후 중기에는 은행자본가, 법률가 등의 신홍계층을 위시로 가발이 유행하였고, 머리가 길어짐에 따라 <그림 33>과 같이 옆으로 넓은 칼라가 아닌 앞으로 길게 내리는 칼라가 차츰 등장하였다<sup>21)</sup>. 후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 폴링 칼라는 사라지고 현대 넥타이의 기원이 된 크라바트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림 34> portrait of Francois de Montmorency  
 <그림 35> portrait of a man  
 <그림 36> Portrait de Ferdinand III par Frans Luycx

초기 폴링 칼라의 구조는 르네상스 시대 러플 칼라에서 변형된 구조이다. <그림 34>처럼 목 전체를 감싸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넥라인에서 턱선까지 원뿔형 구조로 제작되어 얼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직물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그림 35>, <그림 36>처럼 턱선 밑으로 여유를 주었으며, 어깨 전체를 덮는 구조로 제작되어 유행하였다.

이데올로기 (상부구조)				
사회구조 (구조)		착용계급	소재	형태구조
기술 (하부구조)				

문화구성요소로 분석한 남성 넥라인

<그림 37> 문화구성요소로 분석한 폴링칼라

이와 같이 폴링 칼라의 형성에는 <그림 37>과 같이 층상모델 이론의 문화구성 요소인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술적 발전의 영향으

21) 정홍숙(1981). 『서양복식문화사』. (주)교문사.

로 폴링 칼라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착용계급간의 구분이 뚜렷해졌다. 또한,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비롯한 초기 바로크시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폴링 칼라의 소재의 다양화, 구조의 다양성을 야기하였다.

### 3.3 바로크 후기

#### 3.3.1 크라바트(Cravatte)

크라바트(Cravatte)는 ‘크로아트(크로아티아 사람)’에서 유래되었으며, 1660년 크로아티아 군인들이 목에 걸쳤던 것에 의해 루이 14세가 감명을 받아 그것을 왕실의 기장으로 삼게 되면서, 이후 귀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며 유행하게 되었다.<sup>22)</sup>

#### 3.3.2. 착용계급



<그림 38> Portrait of Louis XIV  
 <그림 39> Portrait of Philippe d'Orléans  
 <그림 40> Portrait of gentleman

폴링 칼라는 당시 은행인·상인·법률가등 신홍계급의 성장과 함께 긴 가발이 성행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크라바트가 17세기 중반부터 루이 14세에 의해 왕실의 기장으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귀족계층이나 군인들은 목에 크라바트를 착용하여 ‘멋있음’을 과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귀족 중심의 도시 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상류사회에서만 유행하던 크라바트는 매듭법의 간소화에 따라 1660년대부터 유행의 전유물이 되었다. 편리하게 앞에서 리본이나 매듭을 묶어서 매는 형식의 크라바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남성 복식에 흰 칼라 대신 목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후대에는 넥타이로 정착되었다.<sup>23)</sup>

#### 3.3.3. 소재

크라바트는 주로 실크, 면직물, 마직물, 레이

22) 패션전문자료사전. 검색일 : 2019.05.27

23) 배수정 외,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수학사, 2008, p.171

스 등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신혼 계층들의 크라바트와는 달리, 절대왕정 시기 왕가의 크라바트 소재는 <그림 41>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드르와 베니스의 최고급 레이스 소재들만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41>  
portrait of young Louis de Bourbon



<그림 42>  
180px-5th duke of bedford



<그림 43>  
portrait of Unknown Man

이는 1605년부터 시행된 '폴레트세'<sup>24)</sup>에 의한 계층 간의 구분이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소재 적용의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바로크 후기 절대왕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크라바트의 소재나 구조에 의해 계급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레이스, 머슬린 또는 모시로 만들어 착용하였으며, 18세기 들어서는 서민층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3.3.4. 형태 및 구조



<그림 44>  
Portrait of Charles IV



<그림 45>  
Louis XV en chasseur



<그림 46>  
Peter der-Grosse

초기의 크라바트는 <그림 44>처럼 긴 레이스 천을 리본을 이용해서 목에서 묶어주는 형태였다. 이후에 스타인커크(steinkirk)<sup>25)</sup>가 등장하였

24) 폴레트세(1605) ; 재정이 폴레트가 만들었다 하여 폴레트세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제도는 관직을 돈으로 산 사람이 그 매입가격의 일정비율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면 그 대가로 관직을 상속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세금제도였다. 이 폴레트세는 왕실의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대귀족의 관료직 독점을 막는다는 점에서 절대왕정체제에 필요한 제도였다

25) 배수정 외,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수학사, 2008, p.173

는데 전쟁터부터 우연히 시작되어 유행하게 된 것으로 크라바트를 정교하게 리본을 이용해서 묶는 것이 아니라 두 가닥을 두세 번 꼬아서 쥐스또꼬르의 단춧구멍에 집어넣어 묶는 방식이다.<sup>26)</sup>



<그림 47> 크라바트(Cravatte)의 구조

일반적인 크라바트는 폭 30cm, 길이 100cm 정도의 천을 목에 두 번 감고 앞에서 한 번 매어 늘어뜨린 구조이다. 위의 <그림 47>와 같이 기본적으로 목에 감아 앞 중심에서 한 번 매듭지어 늘어뜨리고 매듭위의 남은 여유분을 접어 내리거나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등의 구조지만, 매듭 및 폭의 다양함으로 인해 여러 스타일이 존재했다. 특히 매듭 구조에 의해 계층 간의 구분이 확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은 왕실의 매듭방식을 적용하여 일반 계층과 자신들을 구분 지었으며, 마지막 매듭을 지은 후에 매듭을 추가하였다. 이는 신혼 계층으로 성장한 법률가, 은행가 등에 대한 견제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매듭법이 간소화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유행을 주도하였다. 기본적으로 30cm 정도의 폭이 대중적이었지만, 아래의 <그림 48>에서<그림 50>까지의 사례처럼 폭을 길게 하여 주름지도록 흘러내리게 하거나 여러 번 접어 시각적으로 풍부한 양감을 보여주는 사례도 나타났다.

26) 고애란,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주)교문사, 2008, p. 212



<그림 48>  
1800s portrait  
of unknown  
man



<그림 49>  
Bernier by  
Ingres



<그림 50>  
1800s portrait  
of unknown  
man

이처럼 바로크 후기의 크라바트는 착용계급, 소재, 구조적 요소에서 당시 사회구조적, 기술, 이데올로기 등 문화 구성요소의 영향을 고루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술발전은 형태의 다양함을 확대하였으며, 초기에는 왕족과 귀족들만의 향유였던 것이 차츰 사회구조의 변혁에 의해 착용계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 (상부구조)				
사회구조 (구조)		착용계급	소재	형태구조
기술 (하부구조)				

문화구성요소로 분석한 남성 네크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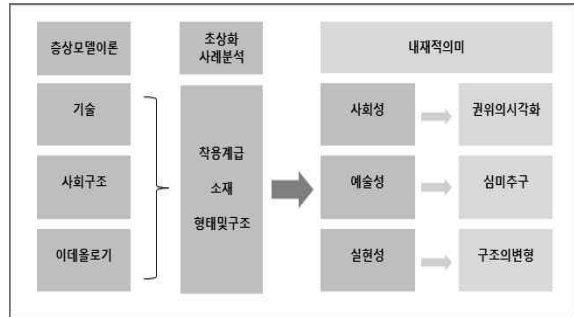
<그림 51> 문화구성요소로 분석한 크라바트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러플 칼라, 바로크 전기의 폴링 칼라, 후기의 크라바트를 해밀턴 층상 모델이론의 문화구성요소의 연관성으로 분석한 결과, 복식 양식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각 국가별 동질시되거나 대립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요소들의 결합과 충돌로 인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 4. 시대별 남성복 네크라인의 내적 의미

앞 장에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남성 네크라인의 외적 형태를 착용계급과 소재, 형태 및 구조로 분석하고 해밀턴의 문화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계층별 권위나 지위를 시각화하는 사회성, 조형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계급 이해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형태의 예술성, 그리고 시대별 산업구조,

통치구조, 이데올로기 구조의 변형을 의미하는 실현성의 세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각 특성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51> 남성복 네크라인의 내재적 의미 도출 과정

#### 4.1. 사회성 : 권위의 시각화

일반적으로 사회성(社會性, sociability)이란 인간의 능력과 표현의 형식이 사회화(socialization)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27) 본 연구에서의 사회성은 복식을 통해 자신들의 계급과 권위를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지위,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이를 표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근세 이후 절대왕권과 자본주의 기반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군주와 귀족, 부르주아 상인들은 경제력을 토대로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 네크라인은 군주의 위신과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신흥 계급인 부르주아는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층의 장식요소였던 러플 칼라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브로케이드, 고급모직 등의 전래와 론, 캄브릭, 레이스 등 고가의 소재 개발로 인한 고급의복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재단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형태의 확장 및 과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러플 칼라를 계급 과시의 수단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러플의 주름도 넓고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기본 3인치였던 러플의 폭이 점점 넓어져 9인치, 18인치나 되는 러플도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러플의 폭에 의해 신분이

27) 사회성: 특수교육학용어사전, 검색일 : 2019.05.27

구분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르네상스 시대는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치장과 사치를 조장하는 향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비판의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이후 30년 전쟁<sup>28)</sup>과 같은 국가분쟁의 영향으로 특정 국가의 국력이 신장되며 국가가 유행을 주도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바로크시대 전기의 유럽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중앙집권국가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왕권신수설'을 기반으로 국가전체주의가 도래했으며 이는 절대왕정의 출현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절대왕정의 왕들은 자신들의 위대함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복식에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왕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시계획의 결과로 도시중심의 귀족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의 권위 과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네크라인의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크 초기의 남성복 네크라인은 러플이 일정 시기동안 유지되다가 좁은 폭의 스탠드 칼라에 뾰족한 소재의 휘스크 칼라가 등장하였다. <그림 52>



<그림 52>  
Richard Sackville



<그림 53>  
Portret van een man

바로크 후기, 절대왕정 시기에는 왕권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상화 하려는 시도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절대왕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각적인 보임세에 치중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과 더불어 복식은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귀족들 또한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정에서 착용하던 가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머리가 길어짐에 따라 바로크 시대 초기에 유행하던 폴링 칼라 대신 루이 14세 시대부터 크라바트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4>  
Portrait of Louis XIV



<그림 55>  
James Stewart the black knight

크라바트의 길이나 폭, 매듭법에 의한 구조의 다양성은 왕족, 귀족, 법률가, 은행가, 서민 등의 계급 이해 수단으로도 작용하였다. 이처럼 바로크 시대 국가들은 외교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에 치중하기도 하였다.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 절대왕정 시기에는 예술과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왕의 위엄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이처럼 복식은 권력을 나타내고 사회적 지위 및 부를 표현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어느 시대나 복식에 의해 권력이나 부를 나타낼 때에 소재, 형태, 구조에 의해 변화를 주었으며<sup>29)</sup>, 이를 초상화로 남겨 타인을 위압하고 존엄성을 발휘하도록 화려함과 정교함으로 위엄과 권력을 나타내었다. 계급사회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역할이 더해져서 복식은 계급이나 계층의 상징이 되었다.<sup>30)</sup>

#### 4.2. 예술성 : 심미추구의 조형성

예술성은 심미성 추구를 바탕으로 한 조형적 특성이다. 심미관,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한 설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을 말한다.<sup>31)</sup> 또한, 심미는 미학(美學, Aesthetics)에서 완성도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별하는 기준이다.

러프 칼라는 르네상스 시대 네크라인 장식의 대표 아이템으로써 인간의 머리에 가까운 목부분을 장식하여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미'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러프 칼라는 르네상스 후기로 갈수록 주름의 폭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이는 마치 착용자의 후광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다. 또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무릎을 굽힐 필요가 없는 특

29) 김명웅(2004), 「신발의 역사」, 선진문화사, P. 92

30) 조규화(1989), 「복식미학」, 수학사, P. 24

31) 심미성 [審美性] : 철학 백과사전, 검색일 : 2019.05.10

28) 30년 전쟁 : 두산백과 전쟁사, 검색일 : 2019.05.17

권 계급을 상징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더불어 르네상스 시대의 향락주의적인 태도에 의해 치장과 사치가 만연하게 되면서 고급 소재, 형태의 확장과 과장을 통해 러프 칼라를 과다하게 장식한 점에서, 단순한 과시적 패션 아이템이 아닌 러프칼라 자체를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바로크 시대 초기 폴링칼라, 후기 크라바트의 외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형적 심미는 형태 및 구조의 '우아함'이다. 바로크 시대 초기 폴링칼라는 대칭과 뻗어나가는 동적인 특성을 보인다. 폴링 칼라의 기본 형태는 직선 위주의 전체 형태였으나, 내부 장식들의 곡선적 배치, 폴링칼라 밑단의 물 흐르는 듯한 율동적인 부드러운 동적 이미지는 우아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56>  
Portrait of an Unknown man



<그림 57>  
Jan Albertsz. Rotius, Portrait of a 33-year-old man

후기 크라바트의 조형미는 주름이 주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비대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소재는 대체로 흐르는 곡선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리본, 레이스, 프릴 등의 과다한 장식들을 통한 율동적인 실루엣 표현이 가능한 소재였다. 크라바트는 루이 14세에 의해 왕가의 표식으로 사용되어 일반 계급과의 차별을 두었으며, 그 형태의 실루엣과 조형미는 웅장하고 기품 있었다.



<그림 58>  
Portrait of Lambert de Vermont



<그림 59>  
Portrait of Philippe, Duke of Vendome

또한, <그림 58>, <그림 59>와 같이 위그(가발; peruke)<sup>32)</sup>의 등장으로 인해 네크라인 장식이 복식의 앞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크라바트의 폭과 길이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예술적 조형미를 고조 시켰다. Hogarth<sup>33)</sup>는 크라바트를 '묵직한 주름은 우아함에 위대함을 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크라바트 주름의 풍부한 양감과 태슬 장식을 통해 귀족적 권위를 조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심미성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별로 추구하는 미적 기준이 다양한 관점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 4.3. 실현성 : 구조의 변형성

복식 양식의 변화는 해당 시대의 산업구조 및 이데올로기의 변형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황들의 결합에 의해 변용을 겪는다. 이데올로기는 '복합적 원인들의 결합'으로 변형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첫 번째로 산업발전에 따른 구조의 전환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의복 생산체제가 공장제 수공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술력이 크게 개선되고 직조기술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원단들이 공급되고 복식이 대중화되었으며, 군주들과 귀족층에서 착용되던 러플 칼라는 형태의 변형을 통해 일반 서민 계층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르네상스 시대 중요한 구조 변화로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르네상스는 문화부흥으로 교회와 봉건제도의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 중심의 세상을 실현시켰다. 부르크하르트는 "르네상스 문화는 처음으로 인간의 완전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여 그것을 표면화·실현화시킴으로써 시대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sup>34)</sup>. 러플 칼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인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확대와 과장을

32) 폴 버텀 위그 : 16세기 후반에 가발이 프랑스에 등장했으며, 그것이 유럽 전체로 퍼진 것은 17세기이다. 패션전문자료사전, 검색일 : 2019.05.27

33) William Hogarth(1697-1764), 영국의 화가이며 판화, 회화 풍자, 사회 비평가, 그리고 사설 만화가 이다.

34) Jacob Christoph Burckhardt,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an』, 1860, 제4부 '세계와 인간의 발견'

임영방,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주)문학과지성사, 2003, p. 33

통한 시각적 권위와 신분의 표현방식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시대의 향락주의와 대중들의 사치를 조장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는 신 중심의 중세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재능을 발휘하며 적당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변형을 추구하고 실현시켰다.

바로크 시대는 산업구조와 국가 통치구조,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형이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 컸던 시기였다. 17세기 바로크 시대는 국가간의 빈번한 전쟁과 시민들의 혁명을 겪으며 사회구조가 급변하였다.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구조의 실현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7세기 영국은 시민의 자유를 위한 청교도 혁명<sup>35)</sup>투쟁이 진행 중이었다. 대부분은 청교도 신자로서 칼뱅의 교리에 따라 근면과 금욕,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며 사는 시민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러프칼라는 목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곧 상체를 굽히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계급의 상징이다. 그러한 러프칼라는 바로크 시대 영국과 네덜란드의 시민층에서 착용한 높낮이가 낮아진 형태의 폴링칼라의 출현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는 구조적인 변형을 뜻한다.

17세기 후기 프랑스 왕권의 절대화는 사회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복식 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왕족과 귀족 중심의 복식은 후일 프랑스대혁명에 의해 구조의 대변혁을 초래하였다. 특히 크라바트는 혁명군 복식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복식은 실현성의 시각적 표상이 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유럽 각국의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활동은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계몽사상<sup>36)</sup>으로 불리는 이 철학 사조는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8

세기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이룬 사조이다. 신(神)이 아닌 인간의 이성(理性)에 의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며,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sup>37)</sup>. 이 중 데카르트의 이데올로기 명제는 바로크 시대 예술 양식의 정립과 더불어 인간을 새롭게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끌어내었다<sup>38)</sup>. 이는 스스로 사유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는 새로운 인간정신의 표현 양식을 뜻하며, 바로크 양식의 이데올로기 구조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초상화에 나타난 남성 네크라인의 변화를 해밀턴의 층상모델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남성 네크라인의 변화는 복식 뿐 아니라 당시의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같은 문화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다. 또한 남성 네크라인은 위와 같은 시대 문화의 영향 및 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성 네크라인이 지니는 내재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당대 문화구성 요소에 대해 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 및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이는 권위를 시각화하는 사회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비례의 무시, 특정부위의 과장 또는 확대를 통해 시각화하며 초상화를 통해 감각적 이미지로 표상화 하였다

둘째, 인간은 목 부분의 장식을 통해 신분과 권력 등을 표현하고 타 계급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었지만,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기능과 같은 심미 또한 추구하였다. 이는 러프 칼라의 후광과 같은 형태에서 오는 조형미, 확장과 과장을 통한 기하학적 실루엣, 또는 소재에서 나타나는 우아미를 통해 조형적 심미추구를 이루어 내었다.

셋째, 남성 네크라인의 변화는 당시의 산업구조, 통치구조, 이념구조에 의해서도 변형되었

35) 청교도혁명 : 1640~1660년 영국에서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 영국사. 검색일 : 2019.05.27

36) 계몽사상(enlightenment) : I.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1784)를 저술한 후부터 사상사(思想史)에서의 용어가 되었다. 본류(本流)는 몽테스키외, 볼테르, J.J.루소를 비롯한 프랑스의 사상가, 문학가이며 여러 저작·작품에 있으나, 그 원류(源流)는 T.홉스, J.로크를 비롯하여 17세기의 영국에서 시작된다. 각국에 싹트기 시작했던 시민정신의 형상화(形象化)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다.

37) 계몽사상(enlightenment). 종교학대사전. 검색일 : 2019.05.27

38) 임영방, 『바로크』, 한길아트, 2011, p.121

다. 공장제 수공업에 의한 산업구조는 상업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원단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바로크 시대 중상주의는 통치구조를 국가 중심으로 돌려놓았으며 국가에 의해 산업이 주도되게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 인본주의는 새로운 인간상을 나타내는 이념의 변형이었으며, 바로크 시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의 등장과 활동은 인간 스스로 사유하고,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한 시대의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 등은 복식의 변화 및 발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시대의 복식 형태를 결정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시대별 문화 구성요소를 통한 복식 변화 및 발전이 지니는 내재적 의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윤경, 이경희(2002).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2(4)
- 김현정, 임은혁(2015).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주디스 버틀러의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 65; no. 3
- 문지영(2008). 「1920년대 프랑스 '남장여자(Garconnes)'의 이미지와 표상」. 프랑스사 연구, no. 20
- 신주영(2008). 「복식에 표현된 시대적 이상미」. 한국복식학회, Vol. 58; no. 3
- 이민정, 이인성(201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살롱 문화 시대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분석」. 한국복식학회, Vol. 62; no. 1.
- 장성은(2007). 「벨플린의 양식사적 관점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의 양식 비교」. 한국복식학회, Vol.57; no. 7
- 정화연(2007).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남성복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 9; no. 2.
- 정현숙(2015). 「박길순, 르네상스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Vol. 24; no. 4.
- 조경숙(2016). 「프랑스 패션 파워 형성의 배경이 된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복식학회, Vol. 66; no. 2
- 정현숙(2017). 「로코코 시대 남성복에 나타난 미적 특성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Vol. 26; no. 4.
- 고애란(2008).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주)교문사.
- 고종희(2004). 『르네상스의 초상화 또는 인간의 빛과 그늘』. 한길아트.
- 김민자 외 5명(2010). 『서양패션멀티콘텐츠』. (주)교문사.
- 김민자(2013). 『복식미학』. (주)교문사.
- 김영나(1998). 『조형과 시대정신-르네상스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 열화당.
- 김영옥 외 2명(2009). 『서양 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도서출판 경춘사.
- 배수정 외(2008). 『현대패션과 서양복식 문화사』. 수학사.
- 사토 요시유키(2012). 『권력과 저항-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난장.
- 신혜순(2016). 『서양 패션의 변천사』. (주)교문사.
-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주)Blue Fish.
- 임영방(2011). 『바로크』. 한길아트
- 임영방(2003).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주)문학과지성사.
- 조성훈(2010). 『들뢰즈의 잠재론』. 갈무리.
- 진중권(2011). 『서양미술사-모더니즘편』. (주)휴머니스트.
- 정홍숙(1981). 『서양복식문화사』. (주)교문사.
- 최경원(2006). 『Great Designer 10』. (주)도서출판 길벗.
- 채금석(2007). 『세계 패션의 흐름』. 지문문화사.
- Henriette Levillain(곽동준 옮김)(2015). 『Quest-ce que le baroque?』. 한국문화사.
- Melissa Leventon(2008). 『Costume Worldwide』. The IVY Press.
- N.J. Stevenson(2014). 『The Chronology of Fashion』. The IVY Press.
- 손성옥 옮김(2009) 『THE FASHION BOOK』. 마로니에북스.
- Walter Pater(이시영 옮김)(2001). 『Renaissance』, 학교재.